

원자력 대 국제 외교

-IAEA 사무총장 선거 뒷 이야기-

미국에서 발행되는 원자력 전문지 <Nucleonics Week>는 6월 12일자에서 지난 6월 4일에 실시된 IAEA 사무총장 선거의 뒷이야기들을 엮어서 보도했다. 이 선거에는 우리나라의 鄭根謀 박사가 입후보하여 많은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만큼 그 전문을 번역하여 소개한다.

IAEA 사무총장 선거에서 이집트의 모하메드 엘바라다이(Mohamed Elbaradei)와 대결하였던 한국의 정근모 원자력대사는 이집트 후보가 IAEA 절차상 정당하게 후보 지명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EA 이사회가 투표를 강행하였다는 사실은 비엔나에서 이 선거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이 이 선거 절차를 성공적으로 배후 조정하였다고 보게 하였다.

IAEA 대회협력차장보인 엘바라다이는 지난 6월 4일 이사회 비밀 투표에서 현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선임되었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이집트 후보의 캠페인이 4월 이후 활발해지면서 예상되었던 바다.

엘바라다이는 이사회 35회원 중 33인의 표를 얻었다. 나머지 2표 중 한 표는 니카라과로서 IAEA 부담금 미납으로 투표 자격을 상실하였고, 한국으로 보이는 다른 한 표는 기권하였다. 한국은 유일한 경쟁 상대인 정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6월 4일 투표 직전 정후보는 선거 절차에 절차상의 불공정과 그리고 강력한 외교적 배후 조정에 의하여 공정성을 침해당하였음을 항의하였다.

엘바라다이는 오는 9월 IAEA 총회에서 125 회원국의 승인을 받게 되면 올 12월 1일 총장직을 승계한다.

엘바라다이는 지난해 가을 IAEA 사무총장직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집트 정부는 지난해 연말 주영 이집트 대사 셰이커를 후보 지명하였다. 셰이커 후보는 엘바라다이를 지지하던 미국 국무성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 지난 3월 6명의 후보 중 아무도 2/3 지지를 획득하지 못한 후, 워싱턴의 지원에 힘입어 엘바라다이가 후보 지명되었다.

6개월에 걸친 선거 기간중 엘바라다이는 매우 조심스럽게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선거 막바지에 아프리카 그룹에 의하여 지명되기 전까지 그는 정식 후보도 아니었다.

선거 절차의 불공정성 지적

정대사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압력을 받아 그의 후보 지명을 두 차례 거부한 후에 후보가 되었다.

미·중 양국은 남한 출신이 IAEA 사무총장에 선출될 경우 북한이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원자력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반대하였다.

정후보는 선거 몇 주 전 카메룬과 몽고 정부에 의하여 후보지명되었다.

이에 앞서 정후보는 이미 태평양원자력회의(PNC), 국제원자력학회회의(INSC), 국제원자력한림원(INEA), 러시아 원자력부,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의 공식·비공식 지원을 받은 상태였다.

그 후 정후보는 후보 추천 브로서를 회원국 대표에게 보내서 자신이 원자력발전, 연구, 개발 분야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다고 피력하였다.

정후보는 선거 직전 이사회 연설에서 “국제 원자력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업무입니다. 원자력계에 평생 몸담아온 전문가, 그리고 행정 경험가로서…… 저는 한스 블릭스 박사의 법적·외교

적 지도력을 보완하는 기술적·행정적 지도력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고 밝혔다. 정후보는 또한 북미와 유럽의 원자력 프로그램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차기 총장은 원자로 건설이 활발한 아시아 지역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후보는 6월 4일 비공개 이사회 연설에서 아프리카 그룹이 엘바라다이를 후보 지명한 것은 '사무총장 후보 지명은 회원국이 하여야 한다'는 이사회 규정(GOV/2894/Rev.1)을 볼 때 적법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아프리카 그룹이 97년 4월 7일자로 보낸 후보 지명 서한에서 수단 정부가 후보 지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지 않다. 그리고 아프리카 그룹 모든 회원국이 이 서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심지어 일부 회원국은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아프리카 그룹은 IAEA의 회원국이 아니며 따라서 규정상 후보 지명권이 없다.”

정후보는 또한 5월 2일 아프리카 그룹의 튀니지아 회원이 보낸 엘바라다이를 후보 지명 서한에도 '튀니지 정부가 후보 지명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EA이사회는 엘바라다이의 후보 지명을 인정한 것이 된다.

정후보는 후보 등록이 개시된 첫날 이사회 의장인 캐나다의 워커 대사가 아프리카 그룹의 서한을 근거로 엘바

라다이 후보 지명을 회원국에 통보함으로써 “여타 우력한 후보자가 선거 절차에 참여할 가능성을 저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정후보는 이사회 연설에서 “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명성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법과 규정이 있는 이상 우리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의심받을 만한 조작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후보도 자신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는 불공정한 절차에 의한 선거 진행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후보는 지금 (IAEA 이사회가) 엘바라다이를 후보로 지명한다면 IAEA가 선거 절차를 '성급하게 그리고 신중하지 못하게' 진행시켰다는 '인상'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엘바라다이를 후보로 전폭적으로 지지로 선출하였다.

원자력과 외교력

일부 회원국과 비엔나 주재 산업계 인사들은 정후보의 논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93+2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폭적인 안전 조치 사찰 권한을 IAEA로 귀속시킨 최근 협상에 참여했던 한 독일 산업계 인사는 “정후보가 IAEA를 배후 조정하는 미국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고 평하였다.

벨기에 핵연료주기 관계자는 정후보가 선거에 패한 것은 “외교의 원자

력에 대한 승리이다. 미국이 엘바라다이를 당선을 배후 조정하였다.”고 하면서, “미국은 한국에 강력하게 압력을 가하고 러시아 등 양 후보에게 모두 중립적이던 국가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로비하였다”고 덧붙였다.

서방 관계자에 의하면 미국은 엘바라다이를 IAEA의 직업 관료로서 작년 이집트의 갈리 총장을 해임시키고 선출한 개혁을 추구하는 UN의 신임 아난 총장과 같이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 개월동안 미 행정부 내에서도 엘바라다이에 대한 지지에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한 관리자는 91년 미국이 이라크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이를 IAEA에 알렸을 때 엘바라다이가 이를 ‘부인하고 믿으려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회상하였다.

IAEA 안전 조치 선임 관계자는 그 사건 이후, 엘바라다리와 IAEA 안전 조치부가 이러한 외부 정보를 인정하는데 “덜 조심스러워졌다”고 지적하였다.

엘바라다이는 그 후 미국이 제공한 북한의 비밀 재처리 작업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IAEA 안전 조치 선임 관계자는 엘바라다이가 Euratom과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하여 매년 IAEA 안전조치부의 1,500 사찰관(man/day)을 절약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지적하였다. (Mark Hibbs 기자) ☞